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5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킴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4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1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8	이 클라라	김 헬레나	성인복사
1/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7	\$ 295.00	\$ 140.00	\$ 600.00

*대림 꽃 봉헌금: \$8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탄 및 새해 미사 일정 안내

12 월 24 일(수): 구유경배 및 성탄전야미사 (오후 6 시).

12 월 25 일(목): 성탄 미사 (오전 9 시 30 분).

1 월 1 일(목):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오전 9 시 30 분)



성체조배: 1/8 (목)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목요일 저녁미사 직후)에 있습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 월 8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에 있습니다.

견진성사: 1/18(주일) 샌프랜시스 성당

오는 1 월 18 일 (주일)에, Kern, Inyo 카운티의 신자들을 위한 견진성사가 주교님의 집전으로 샌프랜시스 성당에서 열립니다. 한인공동체에서는 홍 마르코 형제, 아네스 자매님께서 견진성사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대림 꽃 봉헌 안내

대림시기를 맞아, 대림 및 성탄기간 동안 제대를 장식할 포인세티아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하실 분은 한인공동체 이 그레이스 자매님 또는 성당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당 봉사자’ 감사 저녁 파티:12/14 (주일) 오후 4 시

본당 전체 봉사자들을 위한 저녁 파티가 12 월 14 일 (주일) 오후 4 시에 있습니다. 저녁식사 및 추첨을 통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구역 공동체 모임: 12/21 (주일) 주일 아침미사 후

이번 달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오는 12 월 21 일 주일 미사 후 에 있습니다.

성탄공연: 12/19 (금) 오후 6 시 30 분

전야야킴 신부님과 어린이 성가대의 성탄공연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12 월 19 일(금) 오후 6 시 30 분. 장소: 본당.

티켓: \$10 (17 세 미만은 무료). 많은 참석바랍니다.

*방송국 (TV CH5 49.52)에서 콘서트 음악 녹음예정.



성탄 전야 공동체 파티: 12/24 (전야미사 후)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며, 예년과 같이 선물교환을 위해 약\$20 정도의 선물을 각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 장기자랑과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월 '신부님과 함께하는 천교의 날(매월 네째 주)'은 성탄 전야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한인회 송년파티: 12/28 (주일) 저녁 5 시 30 분

장소: Hodel's Country Dining (Liberty Hall)

5917 Knudsen Drive, Bakersfield, CA 93308. (661) 399-3341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심백섭 신부님의 강의 및 성사'를 위해 저녁식사준비를 위해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 신부님께서도 '작지만 가족같은 우리공동체'의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이삭

‘미녀는 괴로워’와 김아중 (믿는다는 것)

원동연 제네시오|리얼라이즈퍼커스(주) 대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만들고 영화계 동료와 언론, 평단으로부터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여배우를 수혈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완전 신인이었던 여배우 ‘김아중’을 주연으로 발탁해서 영화가 나름 성공을 거두었기에 받은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찬사를 받을 때마다 쥐구멍 속으로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처음부터 김아중 씨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 여배우들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려고 접촉했지만, 많은 배우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미모가 출중한 배우들이 못생기고 뚱뚱한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당시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김아중 씨를 만났고, 수많은 미팅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서는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이 선택이 옳은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김아중 씨를 캐스팅하고 영화 투자, 배급 관계자로부터 “니가 아주 영화계를 떠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번 영화가 너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구나.” 라는 비아냥 어린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능성을 발견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배우를 바꿔야 하나. 정말 이러다가 영화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기운이 빠져있던 저에게 저보다 7살이나 어린 감독이찾아와서는 “대표님, 우리 서로서로 믿읍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 우리가 서로를 믿읍시다.”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 전 자신감을 되찾고 많은 동료들과 ‘미녀는괴로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가장 노심초사했던 여배우 김아중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릴 때, 그녀를 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고, 당신을 우리 또한 믿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요즈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진심으로 주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건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명징한 생각이 저를 곧추세웁니다.

믿는다는 것, 그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하게 된 내 마음을 느꼈고, 내 가슴이 움직였고, 내가 행동했다면, 그 다음은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를, 주님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천주교인으로서 모자라고 또 모자라지만, 단하나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만 새깁니다.

<서울주보에서>